

한국의 30대 22 부부생활

때론 개방 때론 보수 성 관념 이중적 잣대

94.
2.8

“큰 욕심은 없고 가족 중심으로 살고 싶다. 그리고 부부 사이의 행복한 성생활이 인생의 절반 정도의 비중은 된다고 생각한다. 최근 몸을 관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수영을 시작했다.”(35·대학 교직원)

“20대까지만 해도 청교도적인 집안 분위기의 영향으로 성에 대해 굉장히 보수적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솔직히 즐기며 살고 싶다. 주위 친구들도 대개 비슷한 생각이다.”(31·주부)

아내가 주도하기도

30대가 그전 세대와 구분되는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성에 대한 태도다. 그 이전의 세대에서는 성이 부끄러운 것, 은밀한 것, 감춰야 하는 것이었다면 70년대 이후에 청소년기를 보낸 30대에서는 자연스러운 것, 소중한 것, 즐겨야 하는 것 등의 인식이 보편적이다.

연세대 영동세브란스병원 성의학상담센터가 최근 10년 동안 성 기능장애 검사를 받은 3천명을 분석한 결과 30대가 37%로 가장 많았다. 이 센터의 최형기(50) 과장은 “외국에서는 성 기능장애 상담자가 40대나 50대에서 가장 많은 게 보통”이라며 “우리나라에서 30대가 가장 많은 것은 이들이 40대 이상보다 성 기능장애가 많아서가 아니라 이 문제에 그만큼 민감하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사회 분위기의 변화에 따라 여성의 성개방 풍조 확산의 영향을 맨처음 받은 것도 30대의 중요한 특성 가운데 하나이다.

전화상담 전문기관인 ‘사람의 전화’에서는 지난 91년 상담내용 분류항목 가운데 ‘남편의 외도’를 ‘배우자의 외도’로 바꾸고 이밖에 ‘자신의 외도’ 항목을 신설했다. 남성 못지않게 여성쪽의 부정행위

던 피임이 남편에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졌다. 또 남편의 주도로 이뤄지던 성생활이 서로의 합의나 약속에 따르거나 일부에서는 아내가 주도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30대는 이처럼 성에 대해 상호적이고 개방적 의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종종 모순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개방적 사고와는 판

자연스런 삶 일부로 수용 의식 밑엔 60년대식 잔영 성적욕구 불일치 장애상담 많아

가 늘어나면서 기존의 분류 방식으로로는 담아내지 못할 상담이 많아진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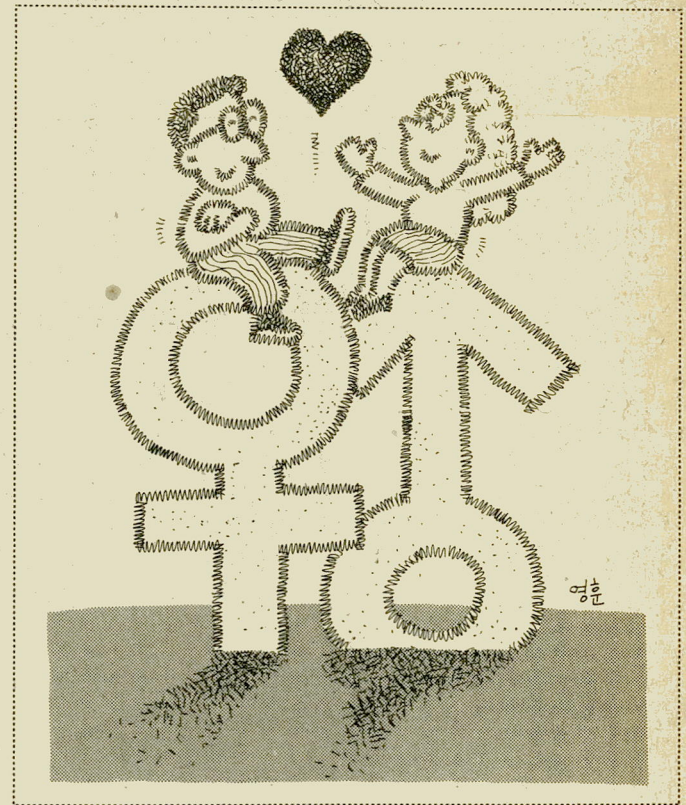
사람의 전화 박경석(39) 실장은 “전반적으로 사회에 성개방 풍조가 확산되고 여자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남자들을 접할 기회가 그만큼 많아진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30대의 성에 대한 이런 태도는 피임의 주체, 성생활의 주도권 등에서도 이전의 세대와는 달라져가는 모습을 보인다. 아내의 의무이

으로 극히 보수적인 윤리의 이중 잣대를 갖고 있는 것이다.

윤리급변 따른 괴리현상

기독교청년회 청소년상담실 이명화(28) 간사는 “상담을 해오는 30대 남자들이 성에 적극적인 아내에 대해 이성적으로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감성적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해 갈등하는 사례가 많다”며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에 대한 이중적 가치관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30대는 또 성개방의 물결 속에서도 거의 공식적인 성교육을 받지 못한 세대다. 학교나 부모, 전문서적보다는 친구의 이야기나 잡지, 만화 등을 보며 간접적이고 왜곡된 성지식을 축적해온 것이다.

공식적 교육 못받아

포르노 등을 본격적으로 접하기 시작한 세대도 30대다. 이에 따라 미혼도, 인공유산 등의 상처가 가장 많이 새겨진 세대이기도 하다.

성의학 전문가들은 많은 30대들이 겪는 성적 고민 가운데 하나로 성적 욕구의 불일치를 든다. 특히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30대 남자들은 이중의 스트레스를 느끼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성은 남자가 주도하는 것이라는 전통적 사고방식이 결합될 경우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경고다.

김이현 기자